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흥근, 서기관 홍순복  
(044-200-2132, 2135)

## 이낙연 국무총리, 쩌ن 다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시절로 베트남 방문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1일(금) 병환으로 서거한 「쩌ن 다이 팡」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9.25(화)~26(수)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
- 「팡」 주석의 장례식은 9.26(수)-27(목)간 하노이에서 국장으로 거행될 예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9월 26일 외국 조문사절단을 접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이 총리는 9월 25일 밤 하노이에 도착하여 9월 26일 오전 중 장례식에 조문하고 애도를 표명할 예정이며, 베트남 고위인사, 타국 조문 사절단 등과의 면담도 추진중입니다.
- 베트남은 아세안 중 우리와의 교역, 투자, 인적교류 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남방정책 이행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,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「팡」 주석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-베트남 양국관계의 긴밀함과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

※ (한-베트남 협력 현황) △교역액은 639억불(2017년)로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국, 우리는 베트남의 2대 교역국, △우리 對베트남 투자는 579억불로 우리는 베트남의 1위 투자국, △인적교류 규모는 270만(2017년, 한→베: 240만 / 베→한: 30만), △우리 대(對)베트남 ODA 규모는 16.5억불(누적)로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  
-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중 △교역액 1위(42.9%), △투자액 1위(42.6%), △인적교류 1위(28.7%), △ODA 규모 1위(44%)인 핵심 파트너

□ 「꽝」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, 특히,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방문 시에는 △호치민 거소 방문, △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동행하는 등 문 대통령을 각별히 환대한 바 있습니다.

□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주요 수행원은 총 5명으로, 국무총리실에서 배재정 비서실장, 추종연 외교보좌관 및 정영주 의전비서관이, 외교부에서 조현 제2차관 및 이상렬 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 수행합니다.

○ 이번 베트남 방문시에도 지난 블라디보스톡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시와 같이 공군2호기를 사용하며, 이 총리는 한국시간으로 9월 26일(수)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.

※ 붙임 1. 「쩨 다이 꽝」주석 약력

**「쩐 다이 꺽」 베트남 국가주석 인적사항**

<p><b>성 명</b></p>	<p>Tran Dai Quang (쩐 다이 꺽)</p>	
<p><b>생년월일</b></p>	<p>1956. 10. 12 (62세) / 녁빙성(북부) 출생</p>	
<p><b>학 력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민경찰대</li> <li>○ 하노이 법학대학교(법학박사)</li> <li>○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대학원</li> </ul>	
<p><b>주요경력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72.7 참전</li> <li>○ 1975 공안부 입부</li> <li>○ 1987 공안부 팀장</li> <li>○ 1996.9 공안부 국가안전자문(Security Advising) 과장</li> <li>○ 2000.10 소장, 공안부 국가안전총국 부국장</li> <li>○ 2006.4 소장, 공안부 차관, 당 중앙집행위원</li> <li>○ 2007.4 중장</li> <li>○ 2011.1 정치국원, 공안부 차관</li> <li>○ 2011.8 공안부 장관</li> <li>○ 2016.4 국가주석(서열 2위)</li> </ul>	
<p><b>가족 관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인 및 2남(장남은 재무부 국장 재임중)</li> </ul>	
<p><b>방한 경력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2년 방한(국정원장 초청)</li> </ul>	